

“5·18 망언 교수 대신 사과합니다”

경주 위덕대 학생들, 광주 민주묘지 찾아 참배

“기성세대의 잘못된 역사 인식 문제” 유가족도 만나...영남에 5·18 알릴 것

“기성세대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신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수업 중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경북 경주 위덕대 교수를 대신해 학생들이 직접 광주를 찾아 사과했다.

위덕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17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오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사회적 인권과 이슈’를 주제로 한 비대면 강의 도중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뻔뻔하는 망언을

한 같은 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훈탁 교수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께 5·18자유공원(옛 상무대 영장)을 둘러본 뒤 오후 1시께 국립 5·18민주 묘지를 참배했다.

학생들은 또 5·18기념재단의 안내에 따라 화순 주남마을 학살사건 희생자 박현숙양,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어린이 희생자 전제수군의 묘를 차례로 둘러봤다.

또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주민족역사묘역(5·18 구묘역)도 찾았고 유가족들과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학생들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故) 문재학 군의 어머니 김길자(81)씨로부터 5·18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전해

들었다. 문 군은 당시 학생으로 지난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저항했다.

이들은 영남지역으로 돌아가 5·18을 알리고 미안마 사태에 대한 지지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다영(여·24) 총학생회장은 “학교 교수의 5·18 망언에 대해 위덕대를 대신해 찾았지만 5·18 당시의 참혹함을 유가족들 등을 통해 직접 듣게 됐다”면서 “영남지역에 있다보면 5·18을 한국사 시험의 일부만 또는 역사적 사건으로 밖에 느낄 수 없지만 이번에 역사가 아닌, 현실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위덕대는 박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7일 오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오월 영령에 대해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백신 접종 경찰 16일만에 숨져...역학조사 나서

장흥경찰서 소속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경찰관이 접종 16일 만에 숨져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장흥경찰서 소속 A(55) 경감은 지난 16일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 경감은 지난달 30일 AZ 1차 접종 직후 메스꺼움, 두통, 오한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료진 권고대로 6시간 간격으로 타이레놀을 섭취했고 정상 근무하다 지난 12일 밤 귀가 도

중 쓰러졌다.

그는 광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텐트 시술은 협착된 혈관을 인위적으로 넓히는 것으로, A 경감은 시술 이후 지난 16일 오후 7시 10분 숨졌다.

장흥경찰서 안팎에서는 A 경감은 올해 초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 경감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들어갔고 경찰도 부검을 실시, 사인을 규명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음주 측정 거부 경찰 입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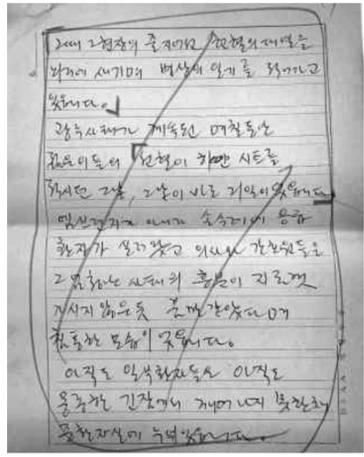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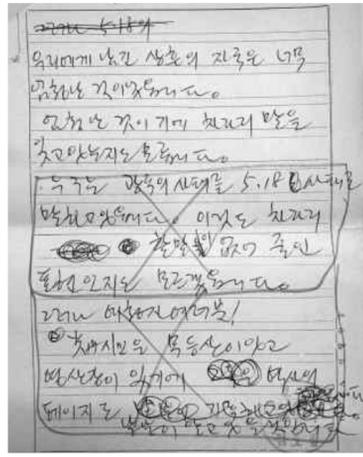
현직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해당 경찰관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기강 해이’ 지적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입건, 조사 중이다.

A 경위는 지난 16일 밤 9시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중이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다.

A 경위는 이날 병기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980년 6월 4~5일 전일방송 원고에서 계엄군이 기사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열을 가친 뒤 ‘검토 필’ 도장을 찍었고(왼쪽), 한 페이지 전체를 통채로 삭제하기도 했다.

‘검열 빨간줄’에 뭉뚱뭉뚱 잘려나간 옛 전일방송 기사 41년 만에 공개

당시 전일방송 이용호 부장 삭제된 생방송 원고 5·18기록관에 기증

1980년 계엄군의 엄격한 언론 통제 실상을 알 수 있는 방송원고가 41년 만에 공개됐다.

17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에 따르면 1980년 당시 전일방송(VOC) 이용호 뉴스부장은 1980년 6월 4·5일자 전일방송 ‘뉴스의 현장’ 방송 원고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했다.

전일방송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계열사로, 전남 뿐 아니라 전북에서도 정취가 가능했다.

이 부장의 방송원고는 당시 전일방송 오후 6시 프로그램인 ‘뉴스의 현장’에 사용할 내용으로, 계엄군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당시만해도 생방송의 경우 원고 없이 방송이 이뤄졌다는 게 이 부장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원고는 총 13장으로, 전일방송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원고지에 1~6으로 페이지 번호가 매겨진 원고 한 부와 7페이지까지 매겨진 원고 한 부 등 2부다.

방송원고는 계엄군의 검열로 원고 곳곳에 빨간 줄이 ‘죽죽’ 그어져 있다. 잘려나간 내용도 5·18의 상황을 기재한 웬만한 내용은 모두 들어내 5·18의 실상을 축소하고 삭제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 원고 중 ‘그 때 그 현장의 줄지어 선 헌혈의 대열

을 보러에 새겨며 병상의 일상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사태가 계속된 며칠동안 젊은이들의 선혈이 하얀시트를 적시던 그날, 그날이 바로 21일이었습니다’, ‘엠브런스가 아니라 손수레에 응급환자가 실려왔고 의사와 간호원들은 그 엄청난 사태의 흥분이 지금껏 가지지 않은 듯 짙은 갈았다며 침통한 모습이었습니다’ 등의 내용은 통채로 들어내라고 빨간 줄이 그어졌다.

또 원고 중 ‘절규의 5월’이라는 단어가 빠지는가 하면, ‘5월의 신록속에 묻힌 수많은 영령들에게’라는 문장에서는 ‘수많은’이라는 단어를 빼도록 표시했다.

방송원고를 기증한 이용호 씨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던 처참한 현장을 높은 건물에서 목도하고도 방송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것을, 총칼 앞에 언론도 언론이지 못한 세상을 한탄하며 지냈다”면서 “당시 원고의 절반 이상이 잘려나가면서 할 멘트가 없다보니 ‘여러분 잘 조심하십시오’라는 마지막 멘트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회상했다.

정용화 5·18기록관 관장은 “5·18 당시 신문 뿐만 아니라 방송 등 모든 언론에서 검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하루 2회 백신 접종’ 물의에 질병관리청 “개선”

80대 남성이 하루에 두 차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는 등 허술한 접종자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판(광주일보 5월 17일 7면)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질병관리청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복 접종을 하거나 접종 시기가 아닌데 먼저 접종을 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서 미리 대

상자의 접종력(接種歴)을 확인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에서는 A(85)씨가 지난달 28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연이어 2차례 받은 이후 뒤늦게 폐렴증상과 혈전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매를 앓고 있어 자신이 접종 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중개 환영. 010-3605-5000

오피스텔 신축 부지

- ▶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156평, 일반상업지역
- ▶ 지하1층 지상9층, 47㎡, 64호실
- ▶ 임대/분양 100% 최고 장소
- ▶ PF 28억 가능, 허가 득
- ▶ 매매 - 협의

거문도, 싹땅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50 ~ 400평씩 매매
- ▶ 펜션, 주택, 별장부지
- ▶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 ▶ 근접땅 경매로 50만원 낙찰
- ▶ 매매 - 평당 30만원씩

거문도 별장 주택

-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 ▶ 대지 221평, 건물 21평
- ▶ 방 2, 화 2, 거실, 주방
- ▶ 바닷가 최고 전망
- ▶ 텃밭, 정자, 내부시설
- ▶ 매매 - 2억2000만원